

시대에 뒤쳐진 경제학 교과서 리콜하라? *

안 국 신 (중앙대 교수 · 경제학 · 한국경제학회 회장)

<시대에 뒤쳐진 경제학 교과서 리콜하라>는 도발적인 글이 뒤늦게 눈에 띄었다. 지난 2월 6일 세계미래포럼의 이 영탁 이사장이 중앙일보의 『내 생각은 ...』란에 쓴 글이다.

논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으니 기존 경제학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수십년간 경제학계에 굳게 자리잡아 온 이른바 ‘작은 정부와 큰 시장’ 논리가 파탄났다는 것이다. 이런 무용지물의 이론체계를 고수한 불량품 교과서를 저자들이 리콜하지 않으니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기존 경제학이 최근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은 맞다. 금융공학이라는 미꾸라지가 연못 물을 그렇게 온통 흐려놓을 줄은 몰랐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존 경제학이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은 틀리다. 이론은 오래 사실을 뒤따라가게 마련이다. 만유인력이라는 사실은 오랫동안 존재했었다. 이 현실을 뉴턴이 뒤늦게 이론으로 정립한 것이다. 지나친 증권화라는 시장현상과 금융감독당국의 미흡한 건전성 규제가 합쳐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경제이론이 뒤늦게 나타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역동적인 발전을 하는 가운데 잇을 만 하면 위기를 겪곤 했다.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다양한 요인이 언제 어떻게 엉켜 위기를 일으키는가를 규명하고 경제위기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까지는 경제학의 갈 길이 멀다. 이는 마치 9월에 우리나라에

* 본 원고는 2010년 2월 6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신문칼럼에 대한 반박논평임.

태풍이 많이 오는 줄은 알지만 어느 날 어느 경로로 오는지를 정확히 예보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대개 금융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이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는 자산시장에서는 단기에 지나친 쏠림현상과 과잉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겸손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존 경제학 교과서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대명제로 강조하는 것은 맞다. 최근의 경제위기가 이 대명제를 ‘큰 정부와 작은 시장’으로 돌릴까? 아니다. 옛 소련이나 현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서만 ‘큰 정부와 작은 시장’을 내세울 수가 없다. 경제학 교과서는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둘 다 인정한다.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보다 시장이 더 커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경제위기로 시장이 더 커야 하는 몫이 줄어 든 것 뿐이다. 시장이나 정부나 양자택일이 아니라 시장이 자원배분의 주된 역할을 맡고 정부가 시장을 보완해야 한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시장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한데 통상적으로는 시장이 정부보다 더 중요하다. 때로는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이런 중용의 시각을 기존 경제학 교과서는 슬기롭게 보유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기존 경제학 교과서를 리콜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 단선적인 시각으로서 리콜해야 한다. 경제학은 아직 풀지 못한 과제가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놓은 미시경제학의 성과만으로도 ‘사회과학의 여왕’이라는 평가를 계속 받을 것이다. 학생들은 책을 살 때 한물 간 경제학 교과서를 잘못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불들어 때도 좋다.